

NEWS LETTER

2019년 3월 18일 Vol. 336

동국대학교의료원 기관장 취임 고불식

동국대학교의료원은 3월 12일 병원 5층 법당에서 2019 동국대학교 의료원 기관장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은 개식사, 삼귀의·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육법 공양에 이어 신임 조성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고불문 봉독 등이 진행됐다.

이날 고불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큰스님을 비롯해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 각 기관장 등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보직자 2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전에 고(告)하며 원만한 회향을 기원했다.



기관장 임명장 수여식 개최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3월 12일 병원 4층 중강당에서 2019년 상반기 기관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큰스님이 참석해 동국대학교 의료원 조성민 의료원장을 비롯해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김동일 병원장, 경주병원 나득영 병원장, 분당한방병원 박성식 병원장 등 총 9명의 기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자광 큰스님은 “어려운 가운데 큰 업무를 맡기게 됐다. 종단과 학교, 병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엄태식 불자, 병원 발전을 위해 1억 원 쾌척

지난 3월 12일 불교 신도 엄태식 불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기부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이날 전달식은 동국대학교의료원 기관장 임용식 초대를 통해 이뤄졌으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큰스님을 비롯해 조성민 의료원장, 분당한방병원장, 경주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됐다. 엄태식 불자는 이날 기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자비 나눔을 실천하게 됐으며, 불교종립병원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지정병원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9 개방형 실험실구축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은 우수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기업과 연계해 공동연구 및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병원 중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포함해 5개 병원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최대 3년간 10개 기업이 동시 활용 가능한 개방형 실험실 설비 및 운영, 기술·제품 개발 지원 등 협력 연구추진을 위한 연간 8억 원씩 최대 2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해원 병원장은 “개방형실험실 사업 주관기관 선정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 혁신체제 구축에 일조하게 됐다.”며,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의료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이 분야의 대표적 의료기관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